

제 97 호

연중 제 27 주일

(강림 후 18)

1974. 10. 6.

쇼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강 론】

양심의 명령 대로



서 석 구 신부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얻기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명예를 얻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재산을 소비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때는 실망하거나 또는 세상을 원망도 합니다. 이런것이 바로 양심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양심은 인간의 마음에 누구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양심을 속이면서 불안속에서 삽니다. 이런것을 볼때 양심은 자기 마음속에서 가꾸고 키워야 될줄로 압니다. 양심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양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사회에는 그 반대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활 그 자체가 양심의 명령대로 따르는 생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하느님으로 부터 양심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사회도 어떤 국가도 어떤 헌법도 양심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순수한 양심은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고귀한 존재라는 것도 양심과 자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소리나는 방울을 장치하여 가까이 오는 배에게 부근의 암초의 소재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배의 선원이 장난으로 그 방울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곳을 지나면 배가 암초에 부딪쳐서 침몰했습니다. 바로 그 배는 방울의 줄을 끊어버린 선원이 탄 배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고 몸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본래의 심정과 양심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의 심정과 양심은 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속에 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할때 기쁘고 사랑할때도 기쁘고 그러나 화를 낼때에 괴롭고 불의를 봤을 때 분개하고 자기를 회생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점에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신과 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양심이 가르치는 일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할수록 천상의 신의 모습을 더럽히고 지상에 있어서의 신의 모습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이르는 것을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은 누구나 신의 이름을 밝히고 그 힘과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일거 일동을 아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신이요, 다른 하나는 양심입니다. 이런것을 볼때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양심의 명령대로 행할때 바로 하느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됩니다. 두려워 말고 하느님의 소리인 양심의 명령대로 우리생활을 실천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중앙성당 보좌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주여, 만사는 당신 뜻에 달려 있사오니, 아무도 당신의 뜻을 거스리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하늘과 땅과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의 주인되시나이다

(2)말씀의 전례

□**제 1독서** (하박국 1:2-3, 2:2-4)
은인은 신앙으로 산다.

□**창세기** ②야훼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어서 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 돋우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 노래가락 드높이 주님을 부르세. ③

□**제 2독서** (디모테오후서 1:6-8, 13-14 성서 P 484)
우리 주님의 증언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다”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로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 17:5-10 성서 P. 176)
신앙만 있다면.

□신자들의 기도

1. 진리의 원천이신 주여! 당신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었나이다. 전교의 말을 맞는 우리에게 이미 당신으로부터 받은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②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우리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마리아여! 당신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김으로서 구세주를 세상에 낳아주는 특권을 받았읍니다. 성모여! 나를 버리고 주님 뜻만을 따르게 기도하오니 도와주소서 ③

3. 평화의 성호자이신 주여! 당신은 모든이가 하나가 되어 당신의 품안에서 당신을 찬미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주여! 화해의 성년대회에 모든이가 참석하여 당신과 나, 이웃과 내가 삼위일체가 되어 당신안에 모든이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소서 ④
+주여 비오니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줄 아시는 당신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주...⑤
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빵도 하나, 몸도 하나, 우리 많은 사람이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며 모두 한 몸을 이루는도다.

* 쇼정이 산책 *



날개가
갈아야
잘 날아갑니다.

사 랑 하 자

오 갑 수(히지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 신자들끼리의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냐 율법입니까? 그 하나의 일로는 학생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개본당 체육대회나 전주시구 학생 연합회 체육대회 때 임원진에서 제일 문제시되는게 부장전수의 문제 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본당의 명예를 걸고 나와 시합을 한다 해도 그 시합은 서로 알고 화목하게 지내자는 친선 시합인데 그 목적은 아랑곳없이 물질적인 명예에 혈안이 되었으니 어찌 친선게임이라 칭할 수 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친구요 한 가족이요 형제요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러한다면 외교도들이나 천주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나 않았는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도들만이라도 친목을 지키며 서로 사랑할줄 아는 교인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우리 한번 서로를 사랑하는 애길 들어 봅시다. 우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들은 자기의 동료라 병이나 먼 그들은 서로 그를 위로하며 어에서 구해 왔는지는 모르나 약을 가지고 와 그를 위로 한답니다. 또 동료의 생일이되면 성대한 생일 파티가 열린답니다. 그리 호화롭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가장 행복한 때랍니다. 여기 또한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신부님께서 들은 이야기 일니다.

어느 집 마당에서 다섯녀가 부둥켜안고 울고 있더라 합니다. 그 신부님은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 그중 한 처녀를 중앙에 두고 부둥켜 안고 울며 “언니 언니 가지마 언니가 가면 어쩔 간다고 나간다는 거야.”하며 울더라 합니다

그 사유는 그 언니라는 여자가 병이나 집 주인에게 빚을 얻어 썼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쫓겨 나가는 판에 이 동생들이 와서 서로 울고 있더라 합니다. 그중 두 여잔 통장을 내어주며 “언니 이돈찾아 빚을 갚고 함께 살자”더라 합니다. 또 한 여자는 자기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어주며 언니 이걸 팔아 조금이라도 보태서 써 하더라 합니다. 또 한 여자는 자기가 아끼던 옷감을 가지고 와 이것이라도 팔아 함께 살자며 그렇게 울더라 합니다. 그들은 다름아닌 자기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인들이랍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고 살며 우리들이 신앙관에 의해 싫어하는 이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위로하며 사랑하고 사는데 하느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사랑이 눈물 겹도록 애절 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갈라진 우리형제 또한 하느님을 믿지않는 외교인이라도 사랑할줄 아는 포만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전동본당)

마음을 텅굴려요

김 준 식 (라우렌시오)

벌써 저희 밀알회가 생긴지도 5개월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 밀알회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돌보는 「출판물 보급」에 대한 것을 여러 교우님들께 호소하려고 숲정이 편집실을 두드렸습니다. 막상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젊은 폐기로서 이 홍보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젊은 폐기는 차츰 꺾어지는군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도 교회에 무관심 하기에 집집마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이 일을 시도해 보았으나 물론 저희들이 예상했던대로 큰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방법이 제일 좋은것 같기에 지금도 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계속하다보니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저희들이 책을 들고 교우집을 찾아 갑니다. 그러면 어떤 교우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는가 하면 또 어떤 교우님은 말씀하시길 “잡지책 볼 사람 없으니 그만 가지가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 잡지를 이 시보를 다음달에는 누구에게 주나 하고서 고민 해 보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여!

제발 우리 영육에 필요한 교회의 서적 시보들을 읽고 삼시다. 우리의 영신 생활에 도움이 되고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는 교회 서적 잡지 시보들은 관심마저도 갖지 않으시니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고 형제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공소에서는 11권이란 잡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당에서 신부님 모시고 사는 교우님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공소 교우님들은 여러 지방의 교회소식과 영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는데 본당 교우님들은 구경만 하고 제실 작정은 아니신지요. 우리 모두 반성 해 봅시다.

정말 교회에 얼마만한 관심을 갖고서 주님을 찾아 뵈었는가를 말입니다. 특히 구 교우님들! 우리가 먼저 잡지 시보들을 보면서 예비신자 신교우님들을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본당 경우는 거꾸로 되어가니 부끄럽기 짝이 없군요. 우리 구 교우님들이여 각성 좀 합시다. 또한 모든 우리 교우님들이여! 우리 모든 가정엔 하느님 나라를 이 지상에 건설할 수 있는 잡지, 시보 한 부씩 꼭 구독하시어 우리 가톨릭이 외치고 있는 형제애를 실천 하시사 하는 마음 간절하기에 이렇게 여러 교우님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 교형 여러분의 집 ◎

현 대 사 진 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진 옆

전화 ② 6289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③ 6691 교회 85 번)

※ 이전안내

여러분이 아껴주시는

성 바오로서원

새집으로 옮겨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팔달로변의 중앙성당 제대쪽입니다.
먼저 집에서 약 15m 남쪽으로입니다

성 바오로서원 아빌

□양 지 쪽□



너와나

한 상 갑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가는 길에 푸른 꿈을 가슴에 안고....”

요사이 유행하는 노래의 한 귀절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 함께 가잔다.

추석절에 교회 묘지에 성묘를 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아마 그
아수라장같은 버스 안에서, 지옥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고 말이다.

오전에 세시간을 노력했으나 버스를 탈 수 없었다. 물론 택시조차 잡을 수가 없었
다. 하다못해 배차장에서는 탈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그것 역시 무리였다. 미리부터 타고 들어온 사람들로 이미 버스는 만원이 되었고 벌
써 버스 안은 지옥의 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만 좀 밀어!” “내가 뭘데 사람을
치냐!”

차를 못탄 시민들의 불평이 대단하다. “어쨌서 오늘날은 날 성묘객이 밀리는 곳에
증차를 하지않고 이렇게 복잡을 주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믿고 살 수 있는
가?” 그러면서도 증차 요청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고 생각하던 참에 「교통 운수 행정 지도」차량이 그곳에 왔다. 그 세단을 향
하여 급히 쫓아갔다.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그 차는 차를 못타고 고생하는 전직 모
고관을 태우고 그냥 미끄러져 갔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아마 교회 묘지에 성묘를 하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우이거나 아니면 대세를 받고 돌아가신분의 가족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왜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가? 왜 서로 자기만을 생각
하는가?

물론 말은 쉬우나 행동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고 복음의 생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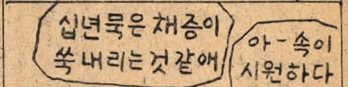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라면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자.

우리는 줄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요십이 (63) 김병오

함동복자축일미사



□양서안내□

아름다운 새벽

-마해송 지음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이 주간의 성경

- 7(월) 로사리오 성모 기념(마산 주교 서품)
독서(사도행전 1:12-14 성경 P.265)
복음(루가 1:26-38 성경 P.122)
- 8(화) 독서(갈라디아 1:13-24 성경 P.427)
복음(루가 10:38-42 성경 157)
- 9(수) 성 디오니시오 주교와
그 동료 순교, 성 레오 나르도 사제
복음(갈라디아 2:1-2,7-14 성경 P.427)

- 루가(11:1-4 성서 P.158)
- 10(목) 독서(갈라디아 3:1-5 성서 P.429)
복음(루가 11:5-13 성서 P.158)
- 11(금) 독서(갈라디아 3:7-14 성서 P.430)
복음(루가 11:15-26 성서 P.159)
- 12(토) 독서(갈라디아 3:22-29 성서 P.431)
복음(루가 11:27-28 성서 P.159)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프 랑 스 제과
* 입 금 님 찾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찾집 ⑤5013
김 원 준(야고버)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⑤ 6094

교우들의

건강 상담과 물리 치료

...고혈압, 신경통, 해소천식,
지압...소화불량, 소아마비, 기타
...병명 미상의 질환에 특효

김 용 택(모이세)

연락처: 진북 고등 공민학교 옆
(진북 2동 1157의 10)



1. 전국 성년대회 (9일<수>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대신학교 교정) 전국의 모든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해의 성년 행사를 갖는 이 모임에 빠지지 맙시다. 본당 신부님이나 사도회장, 사무장께 연락하시어 25년만에 맞는 성년의 의의를 더욱 높일시다.

2. 본당 순회 교육 (주최: 교구 사목 협의회, 10월 5일<토>-6일<일>, 금산 천주교회)
강사: 법석규 신부, 천진, 정주복, 한장갑씨

3. 제4차 전국 올드레아에 1600 꾸르실리스타 참가 (10월 3일, 대전 대흥동 성당)

전국에서 참가한 꾸르실리스타들로 대흥동 성당은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사회 정의와 꾸르실로 운동」이라는 주제 강론을 해주신 두봉주교님 (안동 교구장)의 말씀은 이날 참석한 모든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중앙)

전화 ②651
③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 회장 참석 요망
2. 신년도 예산: 총 8,948,000원
교무금 30% 인상 주일금 100% 인상 (매주 8만원)
교형자매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하느님 사업을 이룩함시다.
3. 성년 행사 (전국대회): 10월 9일 서울에서
많은 교우들의 참석 바라며 희망자는 오늘밤까지 사무실에 신입 바람 (교통비 1,800원)
4. 꾸리아 월례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5. 미납 교무금: 9월말 현재 92만원
우리들을 위한 우리의 본당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미납 교무금을 완납합시다.
6. 군인주일 특별헌금: 오늘은 군인주일
특별헌금으로 군중단 전교 활동에 협조합시다.
7. 애령회 1년간 결산보고: 기금 19만원
총수입 569,938원, 지출 453,300원
잔액 116,638원 (은행 예치)
8. 부녀부 간부총회: 10월 11일 미사후
예산 및 결산보고, 예산 심의
□ 지난 주일 현금 21,65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3. 오늘은 군인주일: 특별헌금 있음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합니다.
남노송동: 이홍재 회장 (2차) 50,000원
인후동: 황시연 (2차) 10,000원
5. 10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성년행사 참석 희망자는 7일까지 (교통비 1,500원 도사탁 지참) 사무실에 접수 바람.
□ 지난 주일 현금 11,59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⑧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 전체 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반장, 구역장, 각 단체 회장, 공소회장, 사도회임원
전원 참석 요망
2. 전주제지 사택 미사 (오늘 오후 3시)
3. 전국 성년대회 10월 9일 서울 대신학교
참가비 (교통비): 1,800원
지참물: 기도문, 성가책, 복음성서, 점심
교우분 적극 참석 권장하며 참가자는 공식미사후까지 교통비 지참하여 사무실 접수 바람
4. 신용조합 임원회의: 다음 주 공식미사 후
□ 지난 주일 현금 2,155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년 행사 참가 권장 10월 9일 서울에서
버스 한대 대절 선착순에 의해서, 오전 8시 출발
지참물: 도시락, 성가책, 성경
3. 성우회 회합: 다음 주 공식미사 후
4. 교무금 수입: 10월 이내로 마감시다.
작년 보다 30% 인상 협조바랍니다.
□ 지난 주일 현금 4,76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성년 대회 참가자 10월 9일 오전 7시 30분까지 점심 지참하여 서학동 성당에 모이기 바람.
2. 화, 수요일은 미사 없음
3. 예비자 교리: 화, 수, 목, 금요일 저녁 8시
단 금주 수요일엔 없음
4. 주일학교 아동 교리: 토요일 4시 30분 미사: 6시
5. 10월은 매괴성월: 묵주 기도를 열심히 바칩시다.
6. 교대 창설 회합: 매주 금요일 오후에 서학동 성당에서 회합 있음.
□ 지난 주일 현금 6,09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슬진
사도 회장 송재진

1. 부부 예비자 교리: 매주 월요일 저녁미사 후
2. 중·고등학생 예비자 교리: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 사도회 소식: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정기총회 있음.
예산, 결산 및 사도회 임원 개신
사도임원, 각 구역장 및 위촉장 받으신분 전원 참석 요망.
4. 유아 세례: 오늘 공식미사 후 있음.
5. 성년 행사 10월 9일
참석하실 분 10월 7일까지 사무실 신청 바람
일시: 10월 9일 참가비: 교통비 1,500원
시간: 오전 8시 30분
6. 주일학교 가을 소풍
장 소: 죽림
일 사: 10월 13일 9시 미사 후
준비물: 도시락, 교통비 40원
7. 영세자에게 축하드립니다. (9월 26일)
성인 52명
하느님의 자녀가 된 영세자들에게 기도로써 축하드립니다.

◇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권 마리아(형자) 동원산동 구역장

□ 지난일 현금 22,802원, 감사합니다.